

본 원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하나인 트위터를 이용하여 썼습니다. 인문학의 주요 키워드를 '변화'로, 그 원리를 '경계붕괴'와 '관계형성'에서 찾았을 때는, 머릿속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글을 쓰는 것 이외의 방법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인문학,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교육>을 소재로 세미나 발표 및 원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면서 '스무고개' 하듯 트윗으로 공유합니다. 관련된 것이 있으면 reply 또는 rt부탁 드려요."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연이어 많은 분들의 의견을 트위터로 주고받으면서 스무고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초안을 작성하고 내용을 다듬고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민하면서 올린 짧은 글을 보고, 본인의 생각을 남겨 주고(reply),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퍼뜨려 주기도(retweet)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문학은 트위터처럼 관계 맺기이며, 그것이 연애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으며, 결국에는 '난 연애를 얼마나 했나'라는 자기 문제로 풀어가 서로 농담하며 놀았습니다. 이렇게 140자 내의 짧은 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나는 소리를 이어 전체 이야기를 엮었음을 미리 밝힙니다.

## 민주주의, 인문학을 만나 사랑에 눈뜨다

글 · 홍성희 somsatang@pspd.org

뇌과학, 표절, 통일, 저항, 도시 공간, 죽음교육, 영상, 디지털 언어, 예술, 문화환경, 기독교, 번역, 중국, 영화, 경제…… 더 무수히 나열할 수도 있지만 우선 여기까지.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바로 앞뒤로 '인문학'을 붙인 도서 제목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 어떤 분야에 '인문학'을 붙여도 이상하지 않다. 아니 '지금 시대는 인문학의 관점으로 무엇이든 보려한다, 또는 볼 수 있다'고 말해야겠다. 상아탑 안에서는 인문학의 위기를 운운한 적도 있지만 이미 대중은 인문학으로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으며 특정 집단의 인문학 강좌도

인기를 얻고 있다. CEO들은 21세기 경영패러다임으로 '인문학적 경영'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클레멘트 코스로 알려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인문학'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어디 이 뿐이겠는가. 동네 구석구석에서 시민단체와 대학이 또는 기업과 시민단체 등이 서로 연계를 맺으며 '인간다움'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비단 인문학적 콘텐츠가 늘어났다고만 평가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인문학을 통해 사랑에 눈뜨기 때문이다. 내 주장을 확성기에 대고 수많은 군중을 향해 소리쳐 주장하기보다 내 안의 이야기를 토해내고, 내 옆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로의 속삭임들은 나비효과의 첫 날갯짓처럼 어떤 태풍을 일으킬 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잘난 사람에게 설득당하고 무엇을 위해 굳게 함께 약속하고 미리 기획하는 단체행동과는 다른 패턴이 시작되었다.

### 예쁜 고양이 한 마리 못 보고 지나친다면?

사람들의 감성을 잘 표현해 화제가 된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 가사를 한 번 보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사뿐히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치겠네.'



점심때쯤 일어나 가벼운 키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양말을 잘 짜 넣고 햇빛 창가에서 차를 마셔보자'

너무도 급하게 달려온 우리는 잠시 목을 축이고 싶어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 그 이상으로 내용을 채우고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를 우리 모두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가치를 판단' 하는 학문이라는 '인문학'의 렌즈로 길을 다시 조명해보고, 대안이 부재한 사회에서 개인인 '나'라도 방향을 찾고 싶다. 커다란 '선풍기' 하나 짝으려 한다.

'성찰'과 '소통'이 화두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적행동으로 인식되는 인문학은 하나의 고급 도구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전에도 존재했던 인문학이 새롭게 조명되는 이유. 여기에는 단순한 욕구나 아쉬움을 벗어난 절박함이 있다. 석유와 석탄이 고갈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 에너지를 찾아야만 사는, 그리고 그 대안 에너지는 어쩌면 다른 형태의 생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할지 모른다. 동시에 다른 색깔의 혹은 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문학으로 표현되는 사회변화의 대안 에너지. 이제 그 원리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도 두 개나.

### '더 가르칠 것이 없구나, 하산하라'?

만화영화 주인공이 복수를 위해 산속이나 절로 들어가 열심히 수련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스승이 쓸데없어 보이는 잔심부름을 시키는데도 때론 반항도 하고 대들기도 하지만 기어이 까다롭게 구는 스승의 마음에 들고 핵심비법을 전수받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국 자신의 능력을 능가한 제자에게 스승은 '네게 더 가르칠 것이 없구나. 이만 하산하라'라는 말을 힘없이 내뱉는다. 그리고 제자는 감사의 큰 절을 눈물과 함께 고하며 산에서 내려와 품었던 뜻을 이룬다. 참 짜릿한 순간이다. 그러나 이런 주제의 만화가 현실에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스승을 찾아 굳이 산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스승은 산에 없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했고,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다. 모든 정보가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열려있지 않고 또 다른 정보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래도 클릭으로 이동하는 시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전문가의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 프로보다 더 나은 아마추어가 나오고 있고, 정부보다 민간이 해킹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인쇄기가 보급되던 시절, 사자생(글씨를 베끼어 써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서 더

넓은 집단으로 책의 출판 능력이 확장되었던 것처럼, 소수에게 교육의 수단이 전유되던 시기는 갔다. 서로서로 관계를 맺어가며 배워나간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탄생한 새로운 대중은 화자와 청자의 구분을 이해하지도 용납하지 못하며, 실시간으로 나의 것을 토해내고 남의 것을 서핑한다. 여기서 주고받는 정보는 초고속으로 확산된다.

지난해 촛불집회의 모습을 잠시 기억해보자. 무대 위에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어떤 주장을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간식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동네 유치원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어른의 주장을 착한 어린이의 얼굴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만져야지 믿고 내 의견을 직접 표현해야 직성이 풀리는 십대라는 것을. 어디에서인가 쓰인 플래카드

의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내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손 피켓에 적어서 직접 외친다. 그리고 그 외침은 웹의 메아리로 퍼져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도 한다. 서당을 찾아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없다. 마음만 먹으면 서당을 지어버린다.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 될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다. 지식을 전달받으면서 유식해지고 잘난 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용을 계속 곱씹고 채우고, 그 가치를 찾아나가고 싶다. 훌륭한 스승에게서 멋진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내가 직접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어 한다. 경계는 이렇게 무너져내려가고 있다. (더불어 여러 학문 사이의 경계를 넘는 소통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한다.)

### 인문학의 조건, 연애를 하라!

강의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유명한 강사가 걸어 나온다. 그리고 멋진 화술로 주제를 풀어낸다. 박수를 치고 강의실을 나오지만 나의 일상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러다가 옆에 앉은 사람과 수다를 떨고,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에게 강의 내용을 전달하다가 또 다른 고민에 빠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인문학을 통해 사랑에 눈 뜨기 시작했다. 내 주장을 확성기에 대고 수많은 군중을 향해 소리쳐 주장하기보다 내 안의 이야기를 토해내고, 내 옆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다른 영역에서 존재하던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잇닿으면서 새롭게 증폭하는 힘. 이것이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 새로운 무기로서의 가치인 것이다. 한정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보다는 그 지식을 상상력과 의지로 자기 것으로 발전시키며 진정한 앎으로 승화시키는 학생들의 몫이 커졌다. 단순한 배움 그 이상의 희열과 두근거림, 잠재력을 내포한다. 여기에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과학기술이 함께 간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나는 멀리 있는 사람과 트위터를 통해 느슨하면서도 밀착된 관계를 맺으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기도 하고 '아하'를 외치기도 한다.

여기서 인문학의 저력을 암시하는 두 번째 키워드가 등장한다. 가치를 찾아나가야 하는 인문학은 주변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공부할 수가 없다. 혼자서 듣고 말하고 쓰고 읽는 공부 방식은 한 물 갔다. 내 손으로 표현되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시작된다. 일방형 배설이 아닌 서로 만나 부딪혀 나는 소리가 다른 것을 창조할 가능성이 있다. 관계를 맺기 전에는 어떤 모양으로 될지 미처 알지 못한다. 사랑하기 전에 서로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발전할지 미리 정할 수 있는가? 나의 이상형을 만나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서로 만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둘만의 결로 발전한다. 또 그 동안에는 무서워서 못하던 일들을 사랑의 힘으로 나도 모르게 해버리기도 한다.

## 강한 민주주의를 향한 인문학은 필수 거울

연애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행동은?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궁금해 하며 이리저리 살펴본다. 나를 객관화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그러면서 사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본다. 관계를 맺게 되면 내가 객관화 된다. 이 힘은 과거 교육보다 더 큰 영향력을 예고하고 있다. 더 많은 대중이 스스로의 욕구를 발현하는 참여민주주의로의 전환이다. 스승 찾아 삼만리인 시대에서 '나는 성장한다, 고로 상상한다', '우리는 공유한다, 고로 창조한다'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인간을 탐구하며 가치를 찾아나가는 인문학은 이렇게 우리를 좀 더 민주주의의 땅으로 추동한다.

여기서 잠시 우리 자세를 점검하고 넘어가자. 인문학은 여러 단계의 사유와 내용의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영역이며, 바로 그 거칠고 불편한 부분에서 힘이 나오는 학문이다.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든지, 모든 사람이 실력이 좋아야 한다든지, 모든 사람이 꾸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했고,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연극공연.

준해야 한다는 기대와 각오는 잠시 또는 계속 내려놓아도 좋겠다.

때론 의욕적인 사람과 이따금씩 기여하는 사람 등이 서로 공존하고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고 부딪히는 것으로 잠시 만족하자.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광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거리의 광장이 있고 웹의 광장이 있다. 어느 새 만들어졌다가도 그 다음날이면 없어지기도 한다. 조직의 힘을 빌리지 않고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으며, 작은 행동으로 대중의 파도를 타는 캠페인이 있다. 140자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에는 근거가 부족할 것 같으며 외면하겠는가. 조금씩 조건이 형성되면 그 때 조금 더 높은 기준을 갖다 대자. 이렇게 관계의 거리를 재가며 그것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는 힘, 그것도 인문학을 통한 성찰이라면 가능할 것 같다.

자, 어떠한가? 인문학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배팅해보지 않겠는가? 앞에서 소개했던 '장기하의 얼굴들'의 노래 가사를 게으름뱅이의 연가로 취급하지 말고 '점심쯤 일어나 가벼운 키스로 하루를 시작' 하는 그 힘을 믿어보잔 말이다. 민주주의는 이제 인문학을 통해 너와 나의 위계를 없애고 관계를 맺는 걸음마를 배워 나간다. 서툴기 때문에 싸우고 상처받으리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성숙함이 가져오는 5년, 10년 후의 미래를 상상해보자. 위험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또 다른 싸움의 모습이다.

글 홍성희 |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간사  
자료사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